

음주문화에 대한 전문가 인식차이에 대한 연구

천성수*, 손애리, 윤선미, 김미경**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 **한국알코올문제연구소

알코올연구자, 보건정책연구자, 입법관련전문가, 관련 NGO단체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집단을 2배수(60명) 선정한 후 확률적으로 30명을 선정하였다. 전문가 핵심 집단 연구를 위하여 전문가 패널 국내 전문가 30명에게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동의를 구한 후 전자메일을 보내 일정기간 내에 응답하도록 한 후 수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국내 전문가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남성이 19명(61.2%)로 여성 12명(38.8%)보다 많았으며, 40대(64.5%)가 주로 응답을 하였고, 대학교수(67.7%)가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한국인 음주문제에 대한 3문항의 모든 문항에 동의를 하였으며, 동의하지 않은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관계를 술로 해결하는 관습’, ‘업무상 술자리 많은 사업환경’의 경우 모든 전문가가 매우동의 혹은 동의로 응답하였다. ‘스트레스 많은 경쟁사회’ 83.9%, ‘저렴한 알코올 가격’ 64.5%, ‘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 환경’ 80.6%, ‘생활 대소사에 자주 노출되는 음주환경’ 93.6%, ‘과음 통제할 사회적 통제수단 부족한 점’ 90.3%의 경우 모두 매우동의 혹은 동의로 응답하였다.

이 중 동의율이 가장 높은 문항은 ‘생활 대소사에 자주 노출되는 음주환경’(93.6%)으로 나타났다. ‘술을 좋아하는 국민기질’ 61.3%, ‘여가활동을 할 수 없는 사회환경’ 77.5%로 다른 문항에 비하여 동의율이 낮았고, 동의 안 한다는 응답도 각각 3.2%, 9.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